



사순 제1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혹 誘惑

사순 제1주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 말씀은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시어 유혹을 받으셨고 이를 이겨내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 묵상하다 보면 유혹은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남을 꺾어서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유혹誘惑이기에 유혹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양의 털을 쓴 늑대처럼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적 삶이 현세적 삶과 온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유혹도 그렇게 딱히 분리되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때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때론 인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현실적인 필요성을 동반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또한 달콤한 사탕발림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꺾어내기도 하지만 때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간해서는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어 유혹에 빠지도록 말입니다.

유혹 앞에 선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단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올바른 길을,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당장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수양修養하는 것입니다. 40일 단식기도로 자신을 단련하여 광야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그 어떤 유혹의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가꾸어나가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진 삶이 자연스럽게 유혹을 극복하도록, 내적 투쟁으로 단련된 삶이 실존적 유혹을 이겨내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유혹을 제대로 극복하는 길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여 십자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광야의 유혹을 견디어 내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뇌와 고통,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곳 윤봉문 요셉 성지에 봄이 오려나 봄니다. 푸르름이 하나둘 움트는 것이 사순의 삶을 잘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는 자연의 속삭임인듯 합니다. 은혜로운 회개의 때,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불타는 아침햇빛 솟아오르면
뉘우쳐 부끄리며 회개하나니
스스로 밝은빛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범죄할자 어디있으랴

전병이 요아킴 신부 | 거제지구 성지담당

성무일도 3주간 목요일 아침 찬미가 중에서



제 1 독 서 창세 2,7-9; 3,1-7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2 독 서 로마 5,12-19

복 음 마태 4,1-11

주일 진레

세계 교회 2020년 3월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교황청 외교관 학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리더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친교 교회론에 기반을 둔 ‘함께 걷기’(synodalitas)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로마 교회의 주교로서 ‘애덕 안에 살아가는’ ‘함께 걷기’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정은 ‘사목적이고 선교적인 회심’을 전제합니다. 교황님 스스로도 ‘교황직의 회심’을 강조하셨고, 내용적으로는 선교-사목적 쇄신을 통한 ‘참여’와 ‘대화’의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느님 백성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개인주의적인 ‘나’로부터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적인 ‘우리’로 살아가는 파스카적인 전이를 당신 리더십의 핵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수장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인 교황님께서는 이 사목적 리더십을 정치 외교의 현장에도 적용시키고자 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지난 2월 11일 바티칸 외교관을 양성하는 〈교황청 외교관 학교〉(The Pontifical Ecclesiastical Academy)에 보낸 서한에서 외교관 양성 과정 중에 1년 동안의 선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통상 〈교황청 외교관 학교〉의 양성 과정은 교회법과 교의신학, 언어, 국제 정치와 외교, 외교사 위주의 사변적인 교육 일변도였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세상의 팔목할 만한 성장에 직면하여 미래의 교황청 외교관은 사제적이고 사목적인 양성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는 교황님의 요청은 당신 리더십의 일관된 실현이기도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자신의 교구 밖에서의 선교 활동 체험’을 중시하시면서, 일상에서 복음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외교관이 되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외교관 개인으로서도 풍부한 사목 경험을 쌓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파견될 지역 교회와 원활하게 통교하여 전체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교회적 ‘원원 전략’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리더이신 교황님께서 전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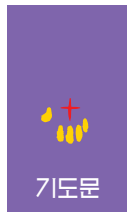
보편 교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초기에 교황청은 깊은 우려와 함께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임을 약속하며, 70만개의 마스크와 가능한 의학적 지원을 중국에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2월 18일 미국 주교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교회적 노력은 언제나 ‘사목적 연대성’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충실한 협조자’가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중국 허난성 난양의 주 바오유 은퇴주교님이 9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국 카리타스의 후원을 받고 있는 허베이성 스자좡시의 가톨릭 자선 단체 ‘진덕애’의 책임자인 장 요한 신부는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연대성의 강함을 보여주고, 의학적 도움을 주는 실질적 도움에 참여하는 보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면하고 있는 지역 교회들은 사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지엽적으로 응크린 자세보다는 보다 보편적이고 사목적인 애덕의 대응도 고려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고통을 주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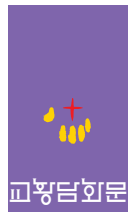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인들이 연민과 능력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이 전염병의 치료제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들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주소서.

저희가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필리핀 주교회의에서 인준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0년 사순 시기 담화(요약)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올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신비를 경축하고자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신비는 개인으로도 공동체로도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주축을 이룹니다.

1. 회개의 근본인 파스카 신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 곧 복음 선포(Kerygma)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솟아납니다.

이번 2020년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저는, 젊은이들에게 보낸 저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의 한 구절을 모든 그리스도인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활짝 벌리신 두 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다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러 갈 때에,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피로 깨끗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23항) 예수님의 파스카는 이미 지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파스카는 성령의 권능으로 언제나 현재가 되어,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해 줍니다.

2. 회개의 시급성

파스카 신비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 자비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 자비의 체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쳐”(갈라 2,20)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 안에 서만 가능합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벗끼리 나누는 허심탄회한 대화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순 시기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을 꿰뚫고 무디어진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어, 우리가 더더욱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 뜻으로 돌아서게 해 주는 기도입니다.

이 은혜로운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호세 2,16 참조)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 목소리가 우리 안에 더욱 깊이 더욱 가까이 되올려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3. 당신 자녀들과의 대화를 열렬히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

교회와 세상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네 삶속에는 이따금 비극적으로 악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의 행로를 바꿀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는, 끊임없이 우리와 구원의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강한 뜻을 드러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분이십니다(2코린 5,21 참조).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성부의 이 구원 의지에 따라, 성자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4.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부활

파스카 신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 안에 아로새겨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하여 우리도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선의의 사람들에게 희생됨을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가장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은 더 공정한 세상을 이룩해 나가는 데에 개인이 참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선의 나눔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해 줍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사순 시기를 거행하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어 하느님과 화해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파스카 신비에 고정시키며, 회개하여 하느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김현 안드레아
신학생 대표 대학원 2학년

찬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교구 신학생 대표 대학원 2학년 김현 안드레아입니다. 먼저 겨울 방학동안 저희 신학생 공동체를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저희 신학생들은 교우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나눈, 하느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지고 신학교로 돌아갑니다. 이번 2020년의 1학기는 신학생들에게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신학교라는 새로운 환경부터 새 친구, 새 학년, 그리고 새 학기 등 모든 것들이 새롭기에 저희 신학생 공동체는 셀렘 반 기대 반으로 이번 학기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움 안에서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저희 신학생 공동체는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신학교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새 학기도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신학생들도 교우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사랑과 평화 안에서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림



기억할 선종 사제
김덕신(요셉) 신부
2018년 3월 1일



기억할 선종 사제
석종관(바오로) 신부
1974년 3월 3일



기억할 선종 사제
지대건(야코보) 신부
1990년 3월 5일



기억할 선종 사제
정수길(요셉) 신부
1978년 3월 6일



기억할 선종 사제
서원열(라파엘) 신부
1999년 3월 7일



교구장 동정

‘코로나19’ 관계로
교구장의 건진성사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교구/본당

직수여식

일시: 3월 1일(주일) 11: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사무장 연수

일시: 3월 3일(화)~5일(목) 2박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학교 입학미사

일시: 3월 7일(토) 11: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

신양대학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4월 신양대학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매월 첫째 주일에 있는 미사가 코로나 19로 취소되었습니다.

위원회/기관/단체

마산지구 여성협의회

일시: 3월 4일(수) 14:00
장소: 교구청

연령연합회 임시총회

일시: 3월 7일(토) 14: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문의: 연합회장 010·4581·5420

여성협의회 상임위원회

일시: 3월 1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회를 위한 교구합창단원 모집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연습: 매주 (화) 19:30~21:30
문의: 단장 010·3868·9136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자격: 만 50세 미만 남·녀 신자
모집시기: 5월 셋째주일 후 월요일
문의: 010·8525·1150(회장)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맛있는 복지관 식당(조리 및 배식)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자기결정 및 옹호프로그램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수도회

가르멜수도회 후원회 미사

일시: 3월 13일(토) 10:30
장소: 마산 가르멜수도원 대성당
문의: 055·271·4241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바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 (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 포함해서 접수가능)
자연순례피정: 3. 27~29, 4. 24~26, 4. 28~30
제주성지피정: 3. 14~17, 3. 19~22, 4. 2~5
문의: 02·773·1463, 064·756·6009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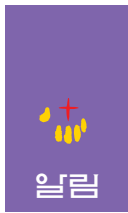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기 타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품격 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3월 28일 이스라엘 순례 349만원 KOREAN AIR 5월 18일 프랑스 성모성지 순례 409만원 ASIANA AIRLINES 6월 19일 알프스 수도원 순례 489만원 KOREAN AIR 본도여행사 02.852.852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SM 수맥홍(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제주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각지역 공항출발, 미사4회, 성지6곳, 신부님 동행, 특2급 호텔 167개 국내성지 순례 1박2일 15개 교구 매월 출발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	--	---	--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하느님 자비의 시간

일시: 매주 (금) 14:00~16:00(3월 13일부터)
장소: 로사리오 집
내용: 14:00 성체현시, 15:00 3시기도, 미사
문의: 010·7155·3498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신청: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검색

춘천교구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여름신앙캠프

일정: 강원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조
참가비: 초등(6차)13.5만 원 /중고등(2차)14만 원
신청: 3월 9일(월) 09:30 온라인 신청(선착순)
문의: 청소년활동부 033·255·6602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1@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교구 성경공부 4월 첫주 개강합니다.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례	문 의
교 구	3월 2일(월) 19:00	월남동성당	1주: 은사의 올바른 이해	박혁호 신부(미카엘)		010·5072·5612
창원지구	3월 한달동안 코로나 19로 성령기도회는 쉽니다.					010·9421·3377
청 년	코로나 19로 성령기도회는 쉽니다.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3월 7일(토) 14:00	도심 속 침묵의 공간 (형원마음의 집)	010·2000·4131	침묵가운데 하느님만이 전부이고 싶은 미혼여성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 안내

마산교구청 신축기금 봉헌 약정 시기를 부활시기 이후로 연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위험과 불안에 휩싸인 이 시기에 우리 교구민 모두는 우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이웃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사순 시기에는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치유되고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응모자격: 등단하지 않은 마산교구 천주교 신자
응모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응모마감: 2020년 9월 30일 도착분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성모신심 피정 취소

문의: 010·4848·7106

‘코로나19’ 관계로 3월 16일(월) 성모신심 피정 취소합니다.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4/20,5/6(299만원)
- ◆이태리일주 9일 3/12(27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99만원)
- ◆다낭성모님발현 5일 3/30(2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20년 4월 2일, 인솔자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40년 전통 <팔보효소>

생활절식 · 효소단식
▶미 · 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정
▶지리산 산청 발효 · 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전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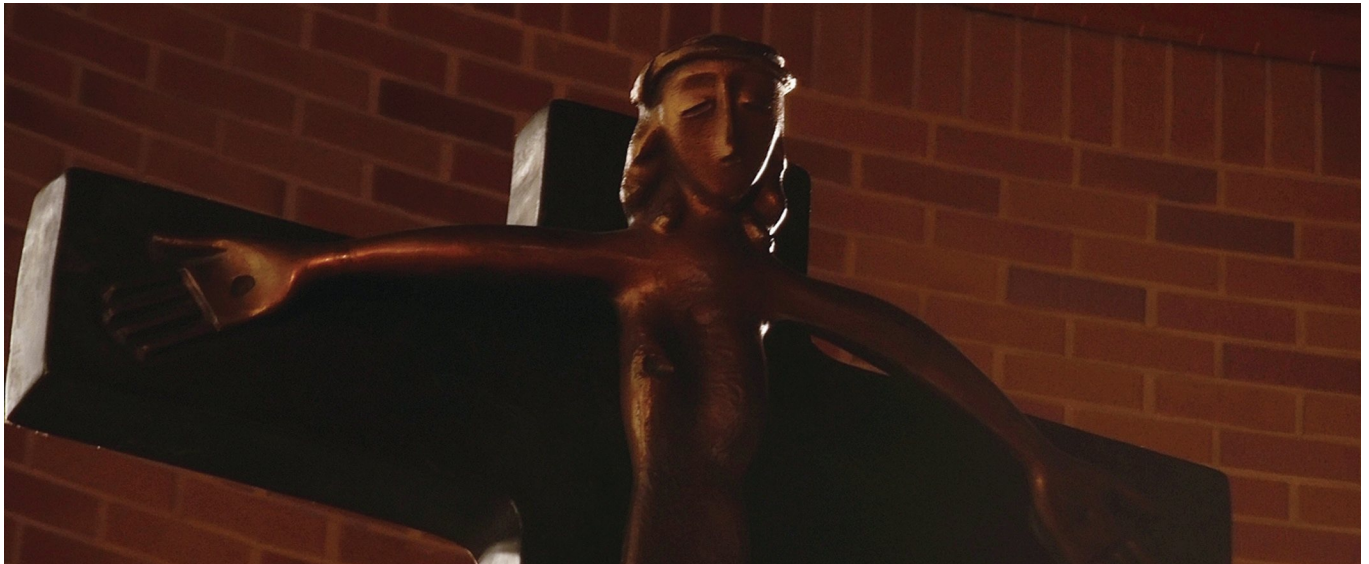
진혜시아클럽 자연습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죽음이 죽음을 삼키니...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에는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숨을 거두시자, 그곳에 사람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탄이 아~~~~~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고 발악하는 모습입니다. 죽음이 죽음을 삼키는 현장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창세 3,4-5)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마태 17,22-23)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배움터,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 수도원에서의 공동생활은 ‘결코 죽지 않으려는 나’가 ‘기꺼이 죽으려는 나’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원에서의 공동생활은 난 척, 든 척, 된 척하며 살아왔던 실제 저의 모습들,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억압해 왔던 그 수많은 상처들, 고통들, 아픈 기억들이 피할 수 없는 관계의 긴장과 갈등 속에 하나둘씩 표면에 드러내면서 ‘결코 죽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저의 민낯과 결정적으로 맞닥뜨리게 합니다. ‘너 때문’이라는 책임 회피, 변명은 저 자신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웃과 피조물인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악순환의 그 메커니즘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고 지금 어떻게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죄의 악순환의 메커니즘에서 저를 구원해 줄 구원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기꺼이 죽으신 그분의 정신, 힘,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 살며 규칙과 아빠 티사(여자수도원장) 밑에서 분투하는 가장 굳센 회수도자들인 저희 수녀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저 자신 안에 죽음이 죽음을 삼키기까지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과 치료하는 의료진들, 대책 마련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채워주시어 우리 모두 이 난국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